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Family Value Orientation of Unmarried Adult Child : Relationship
to the Family Value Orientation of their Parents and Related Variable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석사 조 소 연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조교수 오 윤 자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

M.A. : Cho, So Yeon

Research Center for the Students Life, Kyung-Hee Univ.

Assistant Professor : Yoon Ja, Oh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of parents and their unmarried adult child concerning the family value orientation. In addition to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to child's family value orientation and related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 1) Gender, mother's value of marriage, religion we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hild's value of marriage. 2) Gender and mother's value of sex role we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hild's value of sex role. 3) Child's gender was only influential factor on child's value of child. 4) Gender, mother's value of filial piety, father's value of filial piety were significant factors which have some effects on child's attitudes toward value of filial piety. 5) Gender, mother's value of familism, religion were significant factors which have some effects on child's attitudes toward value of familism. 6) Gender, mother's family value orientation, father's family value orientation were influential factors on child's family value orien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child's gender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child's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mother's family value orientations had strong effects on children's family value orientations.

주제어(Key Words): 가족가치관(family value orientation), 부모(parents), 미혼성인자녀(unmarried adult child), 관계(relationship)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생활은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유대감을 이룩하며, 개인의 인성형성에 기초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은 자기가 속한 1차 집단의 특성에 의하여 가치, 태도, 습관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성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수용하게 되므로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 타인에 대한 반응의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최점화, 1986). 즉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의 관계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하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 교류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조미숙, 오선주, 1999).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치관과 성격적 특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가치체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이된다고 하였고(Troll, Nugarten, Kraines, 1969), 또한 Marjorie & Kristen(2000)도 그들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그들의 결혼과 자녀를 계획하는데 어머니의 가치관과 상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떤 행동이 가족의례의 일부일 때 세대간에 더 많은 전달이 일어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최연실외, 1995). 김경신(1998)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을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Landis & Landis(1963)는 세대과정이 결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조부모가 이혼한 가족에서 부모의 이혼비율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보고하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양육된 자녀가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와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윤리로 깊이 인식되

어 온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 가치가 부정 왜곡되어 가치관 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적 가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가치관 전수의 일차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게 있어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조화는 현대 가족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여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을 예측케 하고 있다. 물론 가족 내부에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동감 있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내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내 가족가치관의 차이가 흔히 가족 내 권력관계에 의해 통제되거나 가족성원들간의 대화와 접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승권의, 2000).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회가 분화되고 가족의 역할을 대행하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의 출현으로 인해 부모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므로 자녀의 가치관에 부모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고정시킬 수 없다고 제기되고 있다(김경신, 1987). Bormann & Stockdale(1979)는 자녀에 대한 가치에 관한 조사에서 어머니와 대학생 딸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Leavy & Hough(1983)은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치관의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박성연(1986)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 어머니의 가치관이 기혼 딸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미혼 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족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치관이 전달된다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에 가치관이 전달된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세대라는 과정은 우리의 가치관,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족에만 존재하는 가족영역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연실외, 1995). 또한 세대간의 가치관 전달은 건강하고, 건설적이며, 바람직한 가족의 측면들에서도 일어나지만, 이혼이나 병리적인 현상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은 사회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중에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가족가치관의 올바른 정립은 건강가족의 형성은 물론 가족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중재요인이 된다. 또한 1세대, 2세대, 3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유사성에 관한 연구는 가치관의 차이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그 밖의 관련변수들이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미래의 가족가치관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결혼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역할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성역할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자녀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의 부양 및 효의식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6〉 부모의 가족 가치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가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가치관

1) 가족가치관 개념과 하위영역

가치나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이러한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의, 2000). 특히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는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가족 가치관의 파악이 부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 가치관 정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강숙경·고정자, 1996). 가족가치관에 대해 황길웅(1973)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으

며,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간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신의 방위가족에서 습득하고 형성된 전반적인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생식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신념으로 가족가치관을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박혜인, 1989)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본 연구의 설계와 같이 가족가치관의 세대차이를 다룬 최근 연구(김경신, 1998)의 가족가치관인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을 통하여 세대간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경향과 가족가치관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가족가치관 변화

유교에 근원을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

<표 1> 가족가치관 하위영역과 시대별 연구결과

연구자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연구대상	지역	연구결과
홍승직 (1969)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子婦觀), 궁합관, 자녀교육관, 효도관, 제사관, 형제관	농민(352명) 기업인(261명) 교수(392명)	도시 농촌	· 농민이 기업인과 교수보다 전통적
박진숙 (1984)	가(家)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대학생 서울(254명) 경주(192명)	서울 경주	· 가부장의식 존재 · 부모부양의식 강함 · 장남의무는 약화되었지만 본인의 의무감은 높음 · 남자가 여자보다 전통적
육선화 (1989)	배우자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도시 농촌	·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주의적 성향 · 성과 세대간 차이로 부부간, 고부간 갈등예측
박혜인 (1989)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여성	도시 농촌	· 도시여성 - 장남동거부정, 가족위주의 배우자 선정 거부 · 농촌여성 -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 영역에서만 근대적 · 부계제와 시가 우선의 전통적 가치 유지, 배우자 선택은 근대적가치지향
이동원 (1987)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부부 550명 (20대~50대)	서울	· 결혼년수가 길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특히 여성) · 남편이 부인보다 전통적 · 가의식과 부부역할분담은 전통적 · 단독주택에 사는 부부가 아파트에 사는 부부에 비해 가족가치관 일치
육양련 (1988)	자녀교육관, 효도관, 가족제도, 근대화관, 성논리관	977명 (20세이하~50세이상)	부산	· 각 영역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부분적으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전통적)
정영숙 외 (1997)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결혼5년내 35세 미만인 남편(305), 아내(307)	서울, 청주	· 부부 공동의사결정, 부모봉양에 대해서는 전통적 · 자신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독립적 · 거주지역에 따라 가족가치관 차이
김경신 (1998)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가치관	중고등학생 청소년, 부모	서울, 광주	· 가정생활에 만족한 집단이 부모자녀간 가치일치 · 효도관은 부모가치관 영향을 받지 않음

족제도의 특징은 가부장권, 가족중심주의, 친족주의, 부자관계의 상하적 신분서열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 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가치관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남녀평등관이나 개인주의 사상 등 서구적인 가족 원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유영주의, 2000).

1980년대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진숙(1984)의 연구에서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은 그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편 여자에게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서울시내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회가 있으면 직업을 갖겠다는 일반여성이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64.4%),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견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등(한남제, 1985)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족가치관에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 김순옥·류점숙(198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족의 유대의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강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육선화(1989)의 연구 역시 농촌가족에 있어서 가족주의가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고 하여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여성은 일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질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84.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라도 가정의 일은 주로 아내가 해야 한다'에 78.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김영희, 1998) 여성취업의식이나 가사역할 분담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던 1980년대와 변화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에서 김경신(1998)은 부양 및 효도관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통성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은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가족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김승권외, 2000)에서도 자녀의 노부모 부양 책임태도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노인 스스로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율은 현저히 저하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들 딸 모두, 또는 능력있는 자녀에 의한 부양을 선호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평등의식이 높아지고 실제 자녀부양에 있어서도 성차 차이가 줄어들어 따라 효규범 역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이 전통사회에 비해 현저하게 제도적·의식적으로 근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족가치관의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특히 성역할관의 경우 예외없이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가치관의 변화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고유의 문화적 전통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므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세대, 성차,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종교, 출생순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세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근대 이후 사회 변화가 급진적이므로 세대차를 통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연구(김경신, 1998)에서, 노년세대와 중년세대 청소년 세대간에 "효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년과 중년세대간의 차이보다 중년과 청소년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세대의 가치 변화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가족가치관과 성차에 대하여 육선화(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에서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냈다(이은경, 1999). 김명자(1985)는 남성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고수하는 반면, 여성은 전통성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가족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변수

로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이은경(1999)은 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모든 가치관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가치관에 있어 연령적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경신, 1998). 이 밖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한 결정변수인 학력, 직업, 소득 수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옥선화(1989)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일명(1988) 역시 여대생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와 교육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변수로서 출생순위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은경(199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사후검증결과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외동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서비스 부양의식이 높았고, 전체 부양의식에서도 외동 집단이 막내 집단에 비해 부양의 부담을 더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 가족형태, 주거형태, 부모의 연령등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이동원, 1987·김일명·김명자, 1989·강숙경·고정자, 1996·최승원의, 1997·정영숙의·1997·김경신 1998·이은경, 1999·최정혜, 1999·조미숙·오선주, 199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 가족 3명을 조사단위로, 각 가족에서 부와 모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미혼 성인자녀 중 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몇 개 대학의 교양과목 시간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성인자녀용과 부모용 질문지 3부를 한 조사단위로 배부·회수하였다. 대학생 연령 이상의

자녀들은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부수는 200쌍 600부로서 이 중에서 161쌍 483부가 회수(회수율 80.5%)되었고 총 153쌍 459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아버지(N=153)의 평균 나이는 51.22세, 어머니(N=153)의 평균 나이는 47.92세, 자녀(N=153)의 평균 나이는 21.45세 였으며, 가족형태는 87.6%가 핵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가족월수입은 200만원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이 33.3%, 300만원 이상이 30.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상공업(41.8%), 사무직(17.0%), 행정관리직(15.0%)의 순으로,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58.8%), 자영상공업(17.6%), 전문직(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94.8% 이상이 대학교 재학/졸업이상이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상(45.8%), 고등학교 졸업(39.9%), 중학교 졸업(14.4%) 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54.9%), 대학교 졸업이상(26.8%), 중학교 졸업(18.3%)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를 보면 아버지는 장남 34.0%, 둘째 24.2%, 셋째이하가 41.8%, 어머니는 장녀 28.1%, 둘째 22.2%, 셋째이하가 49.7%, 자녀는 장남·장녀 41.2%, 둘째 20.3%, 셋째이하가 38.6%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아버지의 경우 무교가 36.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26.8%), 불교(22.9%), 천주교(13.7%)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불교가 29.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28.8%), 천주교(24.2%), 무교(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무교가 4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기독교(27.5%), 천주교(20.3%), 불교(10.5%)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가치관 척도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 척도는 김경신(1998)의 부모-자녀 가족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공자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거

친 척도이며, 영역별 신뢰도는 .64(부양 및 효의식) ~.93(가족가치관)이다. 가족가치관은 5개의 하위영역, 즉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0개 문항이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가치관은 총 60문항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이며, 각 영역별 점수는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합산 점수의 평균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전체 경향이나 영역별 경향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박진숙, 1984·이동원, 1987·옥양련, 1988·김일명, 1989·강숙경·고정자, 1996·김경신, 1999)을 참고하여 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며, 3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높은 경우는 근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 관련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부모와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연령, 종교, 출생순위, 교육수준, 직업, 가족의 월수입, 가족형태, 자녀의 성별을 선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C용 SAS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관련변수들의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간 상관관계가 모두 .56이하로 높지 않으므로 회귀 가정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목변인들은 가변인화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가족가치관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결혼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성별($\beta=0.38$), 어머니 결혼관($\beta=0.32$), 자녀종교($\beta=-0.15$)순이다(<표 2>). 즉, 자녀가 여자일 때, 어머니의 결혼관이 근대적일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자녀의 결혼관은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성별, 어머니 결혼관, 자녀종교, 아버지 결혼관, 가족월수입은 자녀의 결혼관을 26%($R^2=.26$) 설명하는 것으로 나

<표 2>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결혼관				
		b	β	t	R ²	F
자녀성별	1	5.59	0.38	5.33***	.14	25.18***
어머니 결혼관	2	0.26	0.32	4.20***	.21	20.93***
자녀종교	3	-2.09	-0.15	-2.10*	.23	15.53***
아버지 결혼관	4	-0.17	-0.14	-1.95	.25	12.51***
가족월수입	5	1.06	0.12	1.623	.26	10.64***

* p<.05 ***p<.001 DW : 1.868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종교(종교없음=0 종교있음=1)
가족월수입(200만원미만=0, 200-300만원=1, 300만원이상=2)

타났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역할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성역할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자녀의 성역할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 역시 자녀성별($\beta=0.58$), 어머니 성역할관($\beta=0.21$)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자녀가 여자일 경우, 어머니의 성역할관이 근대적일수록 자녀의 성역할관은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영역들과 비교해 보면, 자녀의 성역할관은 성별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역할관을 설명해 주는 모든 변수들의 설명력은 36%($R^2=.36$)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자녀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4〉를 보면, 자녀의 자녀관에는 자녀성별($\beta=0.52$)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자녀관을 설명하는 성별의 설명력($R^2=.27$)은 27%이다. 자녀관의 경우 부모의 가치관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부모의 태도가 자녀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녀 두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박성연, 198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문제 4〉 부모의 부양 및 효의식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표 5〉)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성별($\beta=0.43$), 어머니 부양 및 효의식($\beta=0.30$), 아버지 부양 및 효의식($\beta=-0.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여자일 때, 어머니 부양

〈표 3〉 자녀의 성역할관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성역할관				
		b	β	t	R^2	F
자녀성별	1	4.64	0.58	8.73***	.32	70.00***
어머니 성역할관	2	0.18	0.21	3.02**	.35	39.91***
아버지 성역할관	3	-0.11	-0.11	-1.47	.36	27.54***

** $p<.01$ *** $p<.001$ DW : 2.108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표 4〉 자녀의 자녀관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자녀관				
		b	β	t	R^2	F
자녀성별	7.49	0.52	7.47***	.27	55.87***	

*** $p<.001$ DW : 1.804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표 5〉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부양 및 효의식				
		b	β	t	R^2	F
자녀성별	1	4.70	0.43	6.20***	.18	34.25***
어머니 부양 및 효의식	2	0.25	0.30	4.29***	.25	25.51***
아버지 부양 및 효의식	3	-0.17	-0.23	-3.07**	.28	20.09***
자녀연령	4	0.23	-0.12	1.65	.30	15.93***

** $p<.01$ *** $p<.001$ DW : 1.709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및 효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아버지 부양 및 효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자녀는 근대적인 부양 및 효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성별, 아버지의 부양 및 효의식, 어머니의 부양 및 효의식, 자녀연령은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을 30%($R^2=.30$) 설명하고 있다.

〈연구문제 5〉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성별($\beta=0.39$), 어머니 가족주의 가치관($\beta=0.35$), 자녀종교($\beta=-0.12$)순으로 나타났다(〈표 6〉). 즉 자녀가 여자이고,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자녀의 종교가 없을 때, 자녀는 근대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며,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모든 변수들의 설명력은 32%($R^2=.32$)이다.

〈연구문제 6〉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들이 미혼성인 자녀의 가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각각의 하위영역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성별($\beta=0.55$), 어머니 가족가치관($\beta=0.35$), 아버지 가족가치관($\beta=-0.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자,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자녀의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자녀성별, 어머니 가족가치관, 아버지 가족가치관은 자녀의 가족가치관을 41% 설명($R^2=.4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성별은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랜 부계사회의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 문화적 지지를 받아왔다. 즉, 여성은 지배적인 남성집단에 비해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더 열등감을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 즉 전통적인 성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녀간에 의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한경순, 1999). 각각의 하위영역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가

〈표 6〉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가족주의 가치관				
		b	β	t	R^2	F
자녀성별	1	7.52	0.39	5.79***	.19	35.90***
어머니 가족주의가치관	2	0.36	0.35	5.15***	.30	33.27***
자녀종교	3	-2.04	-0.12	-1.75	.32	23.51***

*** $p<.001$ DW : 1.828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종교(종교없음=0 종교있음=1)

〈표 7〉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인	단 계	자녀 가족가치관				
		b	β	t	R^2	F
자녀성별	1	29.95	0.55	8.56***	.29	64.67***
어머니 가족가치관	2	0.28	0.35	5.07***	.36	43.35***
아버지 가족가치관	3	-0.28	-0.24	-3.43***	.41	34.91***

*** $p<.001$ DW : 1.770 Dummy variable : 성별(남자=0 여자=1)

치관은 부양 및 효의식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에서 어머니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모두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자녀의 가족가치관이 가정 내에서 부모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에 따라 변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자녀의 성별로서 가족가치관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자자녀에 비해 여자자녀가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세대가 우선적인 변수로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에 따른 가치관의 불일치는 평등한 성역할관이 수립되지 못하여 미래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별에 의하여 이분화된 가치관과 편견에서 벗어난 양성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즉, 어린 시절부터 사적이고 공적인 교육, 가족과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양성적인 성역할 및 합리적인 인간관에 대한 교육이 이론·기술·경험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예비부부의 교육 및 부부교육은 한쌍 단위로 참여하는 경험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모든 하위영역에서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은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에 남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남성들은 주가계 부양자로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자녀양육이나 가족 돌보기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외형적, 도구적, 상징적인 존재로 전수되어 자녀와의 관계적인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경우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자녀양육태도가 기대되고 있는 한국사회 가족관계 특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가치관이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사고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 가족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부장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승권의, 2000). 산업화이래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부간 성역할분담이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념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런 가부장적 가치관은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적인 요인들을 제공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및 가족내 지위상승 그리고 자녀들의 신세대 가치관 수용과는 상반되게 가장으로서의 남성은 여전히 고루한 전통적 가치관을 선호하고 있어 가족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이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가족내 부모-자녀간 소통 및 유대 약화는 사회적으로 세대간 통합 및 문화전승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세대차를 해소하고 가족 내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관련한 세대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성인자녀-부모 대화 프로그램' 등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V. 요약 및 제언

현대 한국 가족은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가진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고,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 집단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족문제 해결의 중요한 중재요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가족가치관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 변수로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동일가정의 부모와 앞으로 자신의 가정을 형성하게 될 미혼 성인 자녀의 가족가치관을 알아봄으로써 건강한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성별($\beta=0.38$), 어머니 결혼관($\beta=0.32$), 자녀종교($\beta=-0.15$)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을 보면 남자가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별이 결혼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른 몇몇 선행연구(양명숙, 1996·김경신, 1998)에서도 보고한 바 있다.

둘째로, 자녀의 성역할관에는 자녀성별($\beta=0.58$), 어머니 성역할관($\beta=0.21$)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른 하위영역들과 비교할 때 자녀의 성역할관의 경우, 특히 성별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여자일 경우 성역할관에서 더욱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동일(1991)의 연구에서 젊은(29세미만) 여성층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경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로, 자녀의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beta=0.52$)만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자녀관의 경우 부모의 가치관 모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부모의 태도 등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선행연구(박성연, 1986)에서 어머니와 미혼딸간 자녀관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로, 자녀의 부양 및 효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녀성별($\beta=0.4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부양 및 효의식($\beta=0.30$), 아버지 부양 및 효의식($\beta=-0.23$)이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아들 중심의 한국 가족문화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최정혜, 1999). 주목할만한 결과로는 가족가치관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가치관이 부양 및 효의식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도 부양 및 효의식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었

다.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양 및 효의식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이은경, 1999)와도 일치한다.

다섯째로,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 성별($\beta=0.3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 가족주의 가치관($\beta=0.35$), 자녀종교($\beta=-0.12$)가 영향을 미쳤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하위영역을 모두 포함한 자녀 가족가치관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beta=0.5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어머니 가족가치관($\beta=0.35$), 아버지 가족가치관($\beta=-0.2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가족가치관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자자녀에 비해 여자자녀가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결과와 후속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 대별하여 논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특징적인 결과로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 성별로서 모든 영역에서 여자자녀가 남자자녀보다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은 모든 영역에서 자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들이 그들의 결혼과 자녀를 계획하는데 어머니의 가치관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Marjorie & Kristen(2000)의 연구와, 어떤 행동이 가족의례의 일부일 때 세대간에 더 많은 전달이 일어난다는 연구(최연실외,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치관의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한 Leavy & Hough(1983)의 연구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 어머니의 가치관이 기혼딸과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미혼 딸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198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든 하위영역에서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은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족내에서도 자녀의 가족가치관이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에는 영향을 받지 않거나 부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에 있어 세대간 유사성이나 차이를 단순히 가족적인 전이를 통한 과정이나 연령자체로 인한 세대차이의 과정이라고는 단정지를 수는 없다. 즉, 어떠한 가치관에 대해 항상 세대차이가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대라도 유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치관의 전달이나 차이는 개인이 속한 문화나 경험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가족가치관의 일치만이 가치관이 전달된다고 보는 관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가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강한 가족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간에 모든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동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가족간 행위의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가족규범들을 파생시켜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 가족문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갈등은 시어머니의 상이한 가족 가치관이 며느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이것이 결혼생활에 심각한 긴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치관의 변화속도는 가치 영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특성과 변화 속도에 맞는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가족이 형태, 생활, 관계 등의 측면에서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각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개인, 가족, 국가 차원의 제반 노력이 긴밀하면서도 동적으로 연계되는 상황별 복지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녀관을 제외한 모든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 영향 요인으로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이 주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이 도구적, 정서적 역할에서 근대 부부의 역할은 평등 또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아닌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이 자녀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의 역할 및 건강한 인간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에서 부양 및 효의식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가족가치관은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에 대해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과의 관계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가치관을 세대간으로 검증하고 그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한 가족 안에서 부모와 미혼 성인 자녀를 표집하여 가족가치관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별이므로,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부모의 가족 가치관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있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숙경, 고정자(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김명자, 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

- 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순옥, 류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논문집, 73-101
- 김승권의(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1998).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충북대학생활연구, 23, 21-45.
- 김정옥(1998). 결혼의 기대와 태도의 변화와 지속성. 대구효성가톨릭대 연구논문집. 자연과학, 57, 51-66.
- 김혜선, 한희선(1995).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 144-155.
- 고정자(1979).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17(2), 57-79.
-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류진혜외(1995).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3, 17-55.
-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와 딸 두 세대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3), 129-148.
- 박혜인(1989).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대한가정학회편. 교문사.
- 서정아(199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화심(1981).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유리의식에 관한 연구-대구직할시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9.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5, 225-259.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엄신자(1997). 결혼과 가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사회과학 연구, 15집, 209-227.
- 옥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141-156.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89).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대한가정학회편. 교문사.
- 옥선화 외(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3.
- 옥양련(1988). 도시주민의 가족가치관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 사회과학논집, 7(1), 129-163.
- 이기영 외(1996).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동원(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논문집, 52, 229-256.
- 이동원(1995).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은총 66, 191-212.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유영주 외 2인 공역(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조미숙, 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 최승원(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 15, 83-99.

- 최연실외(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하우.
- 최점화(1986).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 85-101.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9, 13-24.
- 한남제(1985). 가족가치관의 변화.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연구. 137-170.
- 한남제(1987). 대학생의 가족의식. *경북대평화연구*, 12, 119-147.
- 한림과학원편(1997).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 홍승직(1969).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사 아세아문제연구소.
- 황길웅(1973). 한국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lene S. S. & Jerome H. S. (1998). *Family in Transition*. Longman.
- Bormann, C. & Stockdale, D. F. (1979). Value of children :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 Colleen, L. J. (2000). Perspectives on American Kinship in the Later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23-639.
- Marjorie, E. S. & Kristen, E. H. (2000). Adolescents' Plans for Family Formation: Is Parental Socialization Importa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416-429.
- Elizabeth, A. S. & Lawrence, H. G. (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re Unrealistic Beliefs Changed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 71-76.
- Landis, J. & Landis, M. (1963).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avy, R. L. & Hough, O. B. (1983).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Restogi, M. & Wampler, K. (1999). Adult Daughters' Perceptions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 A Cross-Cultural Comparison. *Family Relations*, 48, 327-337.
- Troll, L., Neugarten, and R. J. Kraines (1969). Similarities in Value and 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Merrill-Palmer Quarterly*, 15, 323-336.